



천주교주엽동성당

www.jysd.or.kr

성 요셉 성당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48

주임 신부 : 이병헌 (베드로) ☎ 921-2303
 협력 신부 : 최민호 (마르코) ☎ 921-2304
 부주임신부 : 오정석 (라이문도) ☎ 921-2305
 수녀원 : 정마르가리타, 백시몬 ☎ 921-2306
 연령회총무 : 최인실 (울리안나) ☎ 010-6225-5060
 사무실 : ☎ 921-2301 ~ 2 FAX : 921-3520

미사 시간 및 전례 안내							예비 신자 교리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성시간	매월 첫째 목요일 20:00	수	오 전 반	10:30	
	06:00	06:00	06:00	06:00		06:00	병자영성체	매월 첫째 금요일 13:00	목	오 후 반	2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9:00	유아세례	매월 첫째 토요일 16:30	일	주 일 반	09:30	
어린이가족미사(토) 15:00						15:00	11:00 교중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 전	일	청소년부	
청소년부 미사 (일) 21:00						18:00 (특전)	18:00 청년	혼인면담	매월 셋째 토요일 16:00	“와서 보아라!” (요한 1,39)		
						21:00	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10:00				

+ 그리스도 우리의 빛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하여 우리 교구 원당성당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 되었다는 소식에 여러모로 마음이 편치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기사에 나오는 확진 경로를 살펴보니, 원당 성당에서는 현재 방역지침을 잘 지키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미사를 봉헌하고 있었기에 미사 때 감염된 것이 아니라 미사 후 소모임, 식사, 티타임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엽동 본당은 신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미사를 재개한 이후로 많은 봉사자들과 신자분들의 협조로 교당도 사회적 거리두기 및 생활방역을 잘 이행하고 있기에 미사 참여에 따른 코로나 감염의 위험은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모임과 단체 활동, 개별적 티타임에 대해서는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느 때보다 개인 방역에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막연한 실체에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실체를 정확히 알고 이 어려움을 다 같이 대처해 나가며 나와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과 신앙을 지키며 이어갈 수 있는가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주엽동 본당 주임신부로서 의정부 교구 내에서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다음과 같이 본당을 운영하고 하오니 많은 협조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1. 평일미사와 주일미사는 종전과 같이 거행합니다.
2. 미사 후 개별 모임은 금지(식사 및 티타임 포함)됩니다.
3. 본당 소공동체와 단체 모임은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4. 예비자 교리와 첫 영성체는 기간을 단축하고 교육방식을 전환하여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 몸이 불편하시거나 코로나19의 의심이 있는 교우에게는 미사참여 의무가 관면 되며, 본당 홈페이지(www.jysd.or.kr)와 평화방송을 통하여 중계되는 실시간 미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의정부 교구에서 안타깝게 발생된 코로나 확진에 대해 신자 여러분의 응원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안전하게 별 그날을 위해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2020. 7. 8 주임신부 이병헌(베드로)

◎ 어린이 첫 영성체 일정

첫 영성체를 준비하는 어린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어린이 세례성사

· 일시 : 7월 31일(금) 오후 4시

☞ 첫 영성체 예식

· 일시 : 8월 1일(토) 오후 3시 어린이부 가족미사

◎ 예비신자 세례준비 일정 및 세례성사

☞ 전례 연습

· 일시 : 8월 14일(금) 오후 8시, 대성당

☞ 세례성사

· 일시 : 8월 15일(토) 오후 3시

※ 첫 영성체 예식 및 세례성사 예식은 생방송 중계됩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jysd.or.kr)

◎ 우리들의 정성

- 교무금.....7,760,000
- 주일헌금.....4,605,000
- 하느님의집후원금 2차헌금.....1,857,000
- 하느님의집후원금.....120,000
- 감사헌금.....2,000,000
- 합 계.....16,342,000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1코린 10,17)

주업동소식

「지역별 주일미사 참여 대상」

미사 시간	참여대상 지역
09 : 00	1 지역 / 기타지역
11 : 00	2 지역 / 4 지역
18 : 00	3 지역 / 청년
21 : 00	청소년부 / 지역별 제한없음
특전, 06:00	지역별 제한없음

☞ 평일 오전 10시, 주일 교중미사

인터넷선교분과 생방송 www.jysd.or.kr

● 이병현(베드로)주임신부님께서 사제연례피정에 참가 중이십니다. 교우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 피정기간 : 7월 21일(화)까지

● 관리장 모집

본당을 위해 성실히 일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 자격 : 60세미만

· 제출서류 : 교적증명서, 본당신부님 추천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 접수마감 : 충원시

· 면접 : 서류 심사 후 개별통보

· 문의 : 성당사무실 031-921-2301

● 전입교우 환영

성명	세례명	지역/구역/반
오지연	미카엘라	3-1-5
이순자	헬레나	3-1-5

● 교무금, 하느님의 집 후원금 납부 장애분을 처리하고자 알려드립니다. 사무실에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금날짜	내 용	금 액
2/25,3/25,4/27,5/27,6/25	유은경	매달 5만
1/22,2/24,,3/18,4/21,6/24	기부금	매달 2만
7/6	천주교육지재단	120,000

● 오늘은 농민주일로써 교구 환경 농촌사목을 위한 특별헌금이 봉헌됩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감사헌금 봉헌 :성태경요셉10만원,김동경요한10만원,이연규베드로10만원,한영모안드레아10만원,김지우아네스20만원,박정미루시아20만원,이명옥이레네10만원,김양순마리아10만원,성봉기율리안나100만원

● 코로나19로 인한 구역별 청소 (격주 월요일)

날 짜	대상당	여자화장실	성가대
7월 20일(월)	1-3,4 / 1-5	1-6구역	1-7,8구역
8월 3일(월)	2-1,2-2구역	2-3구역	2-4구역

● 카카오톡에서 QR마크 받는 방법

1. 카톡화면의 아래 “#” 클릭
2. 왼쪽 위 “코로나19” 클릭
3. 중간 위 “QR체크인” 클릭
4. “모두 동의합니다” 클릭후 “동의” 클릭
5. 본인확인과정 필요
“모두 동의합니다” 클릭후 “확인” 클릭
6. 화면지시에 따라 정보 넣고 “다음” 클릭 (사람별로 요구 정보가 조금 다름)
7. QR마크가 보이며, QR마크를 삼각대위에 설치(1층 로비 입구)된 스마트폰 화면에 비춤으로써 출입등록

● 네이버에서 QR마크 받는 방법

1. 네이버 첫화면의 오른쪽 위 코너에 있는 “서랍모양의 그림”을 클릭
2. 오른쪽 위 “QR체크인” 클릭
3. “모두 동의” 클릭후 “확인” 클릭
4. 본인확인과정 필요
화면지시에 따라 정보 넣고 “확인” 클릭
5. QR마크가 보이며, QR마크를 삼각대위에 설치(1층 로비 입구)된 스마트폰 화면에 비춤으로써 출입등록

● 세례명은 어떻게 정하나? 또 영명축일이란 무엇인지요?

이름은 한 개인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집안·가문까지도 대표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세례명이란 세례성사를 통해 받게 되는 영적인 이름이기에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종종 성인의 축일이 자신의 생일과 가깝다거나 이름 자체가 예쁘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별로 택하지 않은 희귀한 이름이라는 이유로 세례명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명을 정할 때는 먼저 그 성인이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하고 그 성인의 행적이나 영성이 자신의 삶에 좋은 모범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며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인의 삶과 위치가 자신과 비슷하면 더욱 의미가 있겠지요. 일생동안 그 성인을 자신의 수호성인으로 특별히 공경하고 보호받으며 그분의 성덕을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가톨릭교회에서 자신의 세례명으로 정한 성인의 축일을 자신의 영적인 생일, 즉 영명축일이라고 합니다. 이날 대부모나 주변 신자에게서 축하받고, 미사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는다면 참으로 뜻깊은 영명축일이 될 것입니다.